

새로운 평화의 조건, 전일 정치의 미래

Next Ground for Peace, Quest for Holistic Engagement

2026.9.21.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지난 45년, 경희는 이날을 매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1981년 11월 30일.
유엔은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총회는 평화의 이상을 함께 기념하고 고양하자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제6차 세계대학총장회(IA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총회입니다.
다가올 유엔 총회에 제의할 세계평화의 날 제정 요청 취지문을 최종 숙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요청,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Great Imperative: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 Nuclear War and World Peace).”
경희가 발제한 기조연설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핵전쟁의 위협.
냉전과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던 위기의 국제정세.
세계평화의 긴급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평화의 또 다른 국면에도 주목했습니다.
산업사회의 뒤편길에 남겨진 기아와 빈곤, 인권, 환경과 같은 지구사회 난제를 논했습니다.
이를 다뤄 갈 근원적 토대를 논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품는 평화.
그 의식이 지구사회 대기(大氣)를 이룰 때,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연설문은 호소했습니다.

몇 년 후면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반세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거센 문명사적 파고와 마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삶과 문명의 서사를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날 45주년을 맞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미원평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원자과학자협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가 제2회 수상기관입니다.

지난 80년간.

협회는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책임의 언어, 상징의 언어로 세계와 공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성취 못지않게 그 오남용과 파장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문명적 당위를 세계에 알려 왔습니다.

협회 대표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회장님.

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님.

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님.

축하와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님이십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최 의원님 발의로 세계평화의 날을 기려갈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고에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최 의원님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미원평화상 제정과 운영에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재미 미원평화상 후원재단과 경희국제재단 여러분이 함께하셨습니다.

노상석 이사장님, 조병태 회장님.

두 기관 임원진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희학원 기관 보직자, 구성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웹캐스트로도 많은 분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명원, 법인 관계자분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전환의 시대, 새로운 평화의 도정(道程)

우리는 지금 큰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대가 예측하지 못한 첨단 문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접하게 된 세상의 정보.
우주 기원과 심연의 신비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과학적 발견.
분자와 세포 단위의 깊은 인과 고리를 밝혀가는 생명 과학기술...
현대문명의 큰 성취입니다.

문명 진전의 이면에는 또 다른 국면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규모의 위험입니다.
넘지 않아야 할 기후 변화 임계점, ‘섭씨 1.5도.’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의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평균 지구 지표 기온은 1850~1900년 평균보다 1.5도를 넘어섰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유엔이 최초 설정한 기준점인 “산업 활동이 활발히 시작된 1750년 이전 수백 년을 기준으로 한 지구
평균 온도.”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 평균 온도는 지금 섭씨 2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을 규정하든, 오늘의 기후 현실은 임계점 이후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삶의 근본을 흔들 더욱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의 기상이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도 엄중합니다.
1만 2천 기가 넘는 세계 핵탄두 보유량.
세계 주요 도시와 전략 거점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핵탄두 운반 체계.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균열과 신뢰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
감당하기 힘든 재앙의 가능성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원자과학자협회는 인류의 실존적 위협에 오랜 기간 주목해 왔습니다.
1947년부터 경종을 울려 온 핵전쟁 위협.
최근 들어 주목해 온 기후 위기와 생물학적 안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파괴적 과학기술의 위협.
새로운 권위주의의 등장과 정치 리더십...

협회는 2020년부터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분이 아닌 초 단위로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85초 전”
올해 초 설정된 지구 운명의 날 시간입니다.
역사상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유엔도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시대의 긴급성, 절박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긴박해진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
기후와 환경, 생태 위기를 비롯한 인류사회의 실존적 위협.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은 이제 경고를 넘어 ‘최후통첩’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오늘의 인류는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핵 절멸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행성을 두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거대한 가속(Great Acceleration).”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인구와 생산, 에너지 소비, 이동·통신 기술 규모를 빠르게 키워 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문명 팽창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학계와 국제사회는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를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선 “지구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의 초과 위협이 더 큰 지구적 재앙의 가능성으로 떠오릅니다.

국제사회는 그간 수많은 국제회의와 협약 체결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역사적 관성이 된 성장 확대와 잦은 국가 간 이익 충돌은 회의와 협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협약과 현실 간의 깊은 괴리입니다.
과도한 자국 중심의 현실정치가 초래한 “거대한 머뭇거림(Great Dithering)”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약과 규범은 정치적 이익과 시선에 따라 지연되고, 또 조정돼 왔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과 책임의 윤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

지구 행성 위 존재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결단은 누구의 몫인가.
여전히 지구적 현안을 이끌어 온 현실정치인가.
국제사회, 국제기구인가.
답은 이미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사회의 점증하는 실존적 위기의 징후를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현안 범주를 넘기 힘든 오늘의 ‘세상 정치(politics of the world)’는 중장기 노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난제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 범주는 제한적입니다.
현실정치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협약과 규약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전환적 기류를 시급히 만들어 가야 할 오늘의 현실.
역사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미래 역사의 주체이고, 주체여야 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풀어 갈 힘의 원천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헤쳐 갈 전환적 노력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정치는 결국 시민의식에 따라 정책 방향을 숙고합니다.
민의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현실정치의 정책 운용은 민의와 시민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상의 소중함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무게를 실을 때, 정치도 국제기구 활동도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은 “우리 국제연합 사람들은(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이란 문구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헌장도 ‘평화의 방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내용을 그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두 헌장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부 간 협의와 합의만으로는 평화를 완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평화의 미래를 지켜가려는 염원.
생각보다 그 염원은 역사의 큰 동인(動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켜 나가야 할 삶과 생존의 미래.
행성 위 못 생명의 미래.
그 삶과 생명의 공존을 위한 시민의식을 우리 스스로 일깨울 때, 결국 인류의 존엄과 평화의 미래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실존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도정(道程)이 우리 모두의 참여 의식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전일의 세계, 전일 정치의 역사적 중요성

‘인간이 신이 아니면 인간은 인간도 될 수 없다.’
어느 철학자의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신처럼 돼야 한다.’

이 두 ‘철학적 정언(定言)’이 바라보는 신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적 신’이 아닙니다.

삶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떠올릴 수 있는 자연의 섭리.

그 섭리와 함께 조형해 가는 자전적 삶의 향로(向路).

그 길 위에 놓인 연결과 초월의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설립의 서사는, 맥락은 달리하지만, 이 문제를 ‘주리(主理)와 주의(主意)’의 세계로 논합니다.

대자연의 이치인 주리의 세계.

인간 스스로 일궈 가야 할 의식과 의지의 세계.

이 두 세계의 내면적 조화를 통해 평화의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산업문명의 궤적 위에 놓인 제도와 규범은 ‘믿음’과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놓인 기회는 이어가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세계, 우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일.

그 일은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후대에 넘겨줄 근원적 수단입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연결과 상호작용의 보편 기제 속에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가 움튼다.’

이들 명제는 결국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전일(全一)의 세계’입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은 전일성 문제를 오랜 기간 논해 왔습니다.

불교의 공(空)과 연기(緣起)의 세계,

인도철학의 브라만과 아트만, 아카샤(Akasha)의 세계,

플라톤의 이데아와 플로티노스의 일자(一者) 철학.

그리고 현대의 일반체계론과 과정철학...

기원과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으로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 실존의 세계는 인간 의식과 우주 내 이치의 현묘(玄妙)한 결합의 탐색 여정이란 점입니다.

그 여정은 하나의 보편 세계를 주시합니다.

창발과 일깨움의 세계입니다.

인간과 사회, 자연과 우주를 관류하는 의식 조율의 세계입니다.

그 점에서 전일의 세계관은 전체주의와 다릅니다.

전체주의가 획일과 통일을 말한다면, 전일의 세계관은 개인의 실존 의식을 중심으로 전체와 부분의

조화, 창발적 사유의 장을 지향합니다.

문명사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와 환경, 생태 위기가 이례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재앙적 전쟁의 가능성과 통제하기 어려운 인공지능과 파괴적 기술.
그 위험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기로에 선 미래.
내 안의 의식과 사유의 지평을 스스로 조율하고 확장할 때, 정해진 미래가 아닌 위기 너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의 지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에 항거해 ‘벨벳혁명’을 이끈 바츨라프 하벨을 기억합니다.
하벨은 정치를 단순한 “가능의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세계를 향상하는 “불가능의 예술”로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초월의 감수성.
그 감수성을 현실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신과 이웃, 세계의 조화를 기하는 의식.
이를 세계 밖 우주로 연결하는 공적 실천의 지평을 ‘획일과 억압 정치’에 맞서는 시민과 함께 열었습니다.

마음을 세계와 우주로 연결하고, 미래를 향한 초월적 감응 역량으로 승화하는 정치.
주어진 현실과 미래, 소망하는 미래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선하는 정치.
저는 그 인간 내면의 향상과 ‘공적 · 행성적 참여’의 과업을 “전일의 정치,” “포월(包越) 정치”라고 부릅니다.

전일의 세계에서 마음의 향로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일.
현실의 제약과 한계를 벗어나고 넘어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에 도전하는 열정과 초극(超克)의 실천.
그 내면의 힘이 함께할 때,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대응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후대에 주어져야 할 미래.
미래를 함께 일구려는 마음.
그 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어넣는 일은 위기 너머 세계를 펼치는 문명사적 전환의 과업입니다.
마음과 의식은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의식이 행성 시민과의 결속과 연대를 이룰 때, 새 희망의 활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시대의 과업, 시선 혁명의 미학을 향하며

지난주 미술대학 6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동문과 전 · 현직 교수님의 작품이 주로 전시돼 있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감동도 있었습니다.

기증된 모든 작품 판매 수입이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작품 세계가 추구하는 예술 감각에 관한 생각은 다양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안온하게 보이는 작품.

미(美)와 추(醜)의 구분을 넘어서는 작품.

소외와 고통, 몽상과 환희의 정조(情調)를 담아내는 상상력...

나와 타자, 세계와 대자연을 잇는 궁극의 실체에 관한 미학적 세계는 실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미학의 세계도 있습니다.

선배들의 마음처럼, 청년 세대의 미래, 오늘의 미래를 위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미원평화상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도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함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화로운 미래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이 무엇이든 평화는 내면의 감수성을 사회와 세계, 대자연으로 연결하는 끊임없는 향상과 초월의 과업입니다.

그 과업은 우리 마음과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대립과 파괴보다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선.

생명의 존귀함을 내 안에 품는 시선.

나와 타자의 차이, 오늘과 미래의 현실을 함께 보려는 시선.

그 시선의 과업이 평화를 향한 시민적 책임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한스 요나스의 말처럼, 정치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미래를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미래.

노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평화를 향한 시선과 전일의 정치는 미학의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상, 현실과 소망.

그 사이에 창의적 해석과 실천적 상상력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내면적 가치의 미래 지향성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물론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문명사적 재앙의 전야, 새로운 기회의 창은 또 다른 차원의 과업을 요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일궈 갈 제후와 연대입니다.

‘미완의 마음 교향곡’과도 같은 시선의 미학과 전일 정치를 함께 펼치는 일입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면서 인간 실존의 과업을 함께 조율해 가는 일.

그 공동의 목표를 구현해 갈 의식과 관여의 지구적 실천이 오늘의 또 다른 “긴급한 요청”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